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엔캐리 청산 이슈. 이제 끝난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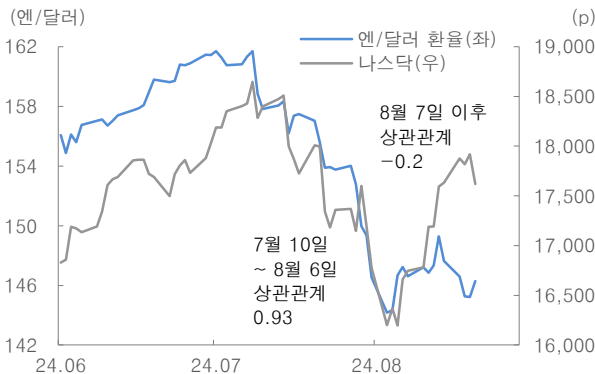
- 엔캐리 청산 압력 정점 통과 & 경기침체 공포 후퇴 = 증시 되돌림
- 단기 등락 이후 KOSPI 2,750선 회복시도 전망. 단기 트레이딩 유효
- 9월 18일 FOMC, 20일 BOJ 전후 엔화 강세 재개 가능성. 마지막 고비

필자는 7월 11일 나스닥, 빅테크 하락반전으로 시작된 조정이 8월초 아시아 증시 대 폭락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의 중심에 엔캐리 청산이 자리한다고 언급해왔다. 그리고 엔캐리 청산과 투자심리를 자극해 온 이슈/이벤트(트럼프 트레이드, AI성장성 우려, 경기침체 공포 등) 간 악순환 고리가 약화되면서 증시는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8월 둘째주부터 나스닥은 엔/달러 환율 등락에 상관없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0.93(7/10 ~ 8/6)에 달했던 엔/달러와 나스닥 지수 간 상관관계가 8월 7일 이후 -0.2를 기록 중이다. 엔화 투기적 포지션이 2.3만계약 순매수로 전환되었고, 일일 40만계약에 달했던 엔선물 거래량도 6월 수준인 10만계약 수준으로 회귀했다. 엔캐리 청산 압력은 정점을 통과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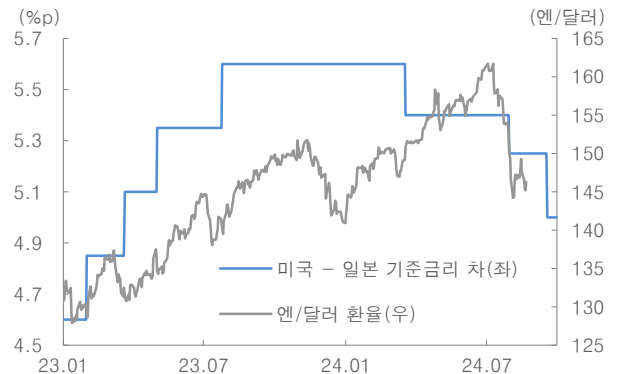
엔캐리 청산 압력 완화와 물가 안정 기대 + 경기침체 공포 후퇴라는 조합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고, KOSPI는 2,700선을 넘나들고 있다. 다음주 7월 PCE와 7월 소비/소득 지표 결과에 따른 등락이 있더라도 9월 중 KOSPI 2,750선 돌파시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당분간 엔캐리 청산 압력을 자극할 이벤트가 없고, 견고한 미국 소득, 소비 모멘텀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추석 전까지 KOSPI 변동성 확대는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2차전지, 인터넷 반등세가 전개되었다면 이번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업종의 반등을 기대한다.

이로써 엔캐리 청산 이슈는 종료된 것일까? 청산압력 정점은 통과했지만, 9월 후반부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다고 본다. 9월 18일에는 FOMC, 20일에는 BOJ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금리인하 폭과 BOJ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따라 엔화 강세가 재개될 수 있다. 엔캐리 청산이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은 8월초보다 축소될 것으로 본다. 다만, 매년 9월 글로벌 증시 약세의 근본적인 이유가 유동성 위축(법인세 납부, 유대고 신년/속죄일 휴일, 펀드 북 클로징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엔캐리 청산 매물에도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은 경계할 부분이다.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되 추석 전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엔/달러와 나스닥 상관관계 마이너스 전환(-0.2)



9/18 FOMC, 20 BOJ... 엔화 강세 재개 가능성



자료: FED, BOJ,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